

‘맛있는 산수’의 반전…10년째 교과서 수록

CULTURE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하루 K 작품 2015년부터 중·고미술교과에 소개
2013년 작업 돌입 꾸준한 반응…올해 4군데 실려
한때 교과서 표지 장식 관심…정승원 작가 작품도

이름부터 눈에 띈다. 그는 본명 대신 ‘하루 K’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펼친다. 그가 추구하는 회화세계 또한 독창적이어서 작품을 접한 사람이라면 단박에 시선을 붙잡는다.

그는 13년째 ‘맛있는 한국화’를 화면에서 붓으로 요리 중이다. 주인공은 하루 K라는 활동명이 더 널리 알려진 광주 출생 김형진 작가다. 하루 K 작가는 광주 화단에서 40대 전후 화가 중 중심축으로 통한다. 미술분야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홍익대 출신으로, 광주를 떠나지 않고 지역미술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서다. 그의 자라는 밑을 바로 따라오는 후배들까지 다투는 역할 또한 순전히 그의 몫이 된지 오래인 듯하다.

이런 그가 40대 대표작가로 평가받는 데는 미술 엘리트 코스 뿐만 아니라 화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 모두 이름을 걸치고 있어서다. 아무나 수록될 수 없는 교과서 등에 작품이 수록돼 있어서다. 그리고 아트페어 등에서 솔드아웃은 물론이고 버스 옆단에도 그의 작품이 부착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또 아트페어와 관련해 그는 근래들어 ‘홍콩바젤’

과 같은 기간에 열린 ‘홍콩아트센트럴’ (3.26~30일)에 작품 4점을 출품했으나 목록에만 있는 작품까지 해서 7점이 판매되는 기업을 토했다. 작가가 대만 시장을 3년째 공략 중인데 홍콩 사람들이 대만에서 사용했던 자신의 프로젝트를 검색한 뒤 작품 구매로 이어진 것 같다는 설명을 잊지 않았다.

특히 이중 그에게 가장 기념비적인 일은 올해도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됐다는 점이다. 올해만도 미래엔 등 세군데 출판사에 발행된 미술교과서 (4종)에 작품이 실렸다. 그의 작품들은 앞서 언급한 미래엔을 포함해 미진사 (2종), 동아출판사 등에 ‘맛있는 산수’ 시리즈가 소개되고 있다. 미래엔의 ‘중학



교과도서 ‘중학교미술’에 실린 정승원 작가의 ‘양동시장’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하루 K 작가

교 미술’ (1~3), 미진사의 ‘고등미술창작’과 ‘중등미술’ (1~2), 동아출판사의 ‘중등미술’ (1~3) 등이다. 하루 K 작가의 미술교과서 수록은 올해들어 정성준 작가 (전남대 교수)에 이어 실린 것으로 알려져 ‘40대 지역미술’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맛있는 산수’ 시리즈는 동양화하면 지루하다는 느낌을 물론이고 고루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를 타개하고 일반인들이 편안하며 재

미있게 한국화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여행가서 답사하며 한 그림작업을 출품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때 ‘밥상 위 산수’를 선보인 것이 출발점이었다는 설명이다.

‘맛있는 산수’ 시리즈는 작가가 2013년 처음 작업한 이후 3년만에 미술교과서에 수록되는 기쁨을 누렸다. 하루 K 작가의 작품이 처음 수록된 해는 2015년이다. 2015년에 개정 교과서가 출판됐는데 운이 좋았는지 미진사에 나온 ‘고등학교미술창작’

과 ‘중학미술’ 등 2권에 실리는 경사를 맞은 것이다. 그것도 모두 표지에 실리는 영예를 안았다고 한다. 그후 2022년 개정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렸다.

하루 K 작가는 “10년째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제 작품에는 팝 스타일 등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접시에 올려둔 자연이라는 콘셉트가 창작아이템적으로 독특한데다 발상이 은근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며 “어렸을 때부터 화가라면 누구나 최고의 영예로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는 것을 소망하고, 한번쯤은 꿈을 꿔왔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꿈이 실현돼 큰 영예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하루 K 작가의 작품은 교과서 외에 광주시내버스 첨단 2번 버스에 부착돼 있다. 그의 ‘맛있는 산수’가 부착돼 길거리의 시민들에 매일 소개되고 있다.

하루 K 작가는 ‘월아트두바이’ (17~20일)를 앞두고 있다. 두바이 아트페어 역시 서울갤러리 소속으로 20여점을 출품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출생으로 또 다른 40대인 정승원 작가도 미래엔 중학교미술에 ‘호랑이 이야기’가, 교학도서 중학교미술에 ‘양동시장’ 및 초등학교미술사에 ‘호랑이 이야기’가 각각 수록됐다. 정 작가의 교과서 수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생명의 아름다움 노래…잔잔한 사랑시편

정애경 ‘내 몸엔 모서리가 없다’ 출간…4부 구성 77편 실려

전남 순천 출생 정애경 시인이 네번째 시집 ‘내 몸엔 모서리가 없다’ (시와사람 刊)를 최근 펴냈다.

생명성을 모색하고 있는 이번 시집은 원초적인 생명성 탐구와 더불어 위기에 처한 생명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제시하는 동시에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풀이다. 또 시집의 한켠에는 존재의 실존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른바 견인시 형식의 시편들로 매우 값져보인다는 귀땀이다.

특히 서정시의 본질이 절망에서 희망을, 불화에서 화해를, 그리고 윤회피아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시인은 실존방식을 드러낸다. 이런 가운데 시인의 성찰과 통찰의 치열성은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한 진중한 질문이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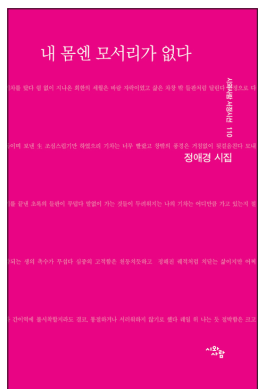
시 ‘발칙한 불’에서 ‘입술’, ‘매혹’, ‘잠미어관’, ‘구애’, ‘숨결’, ‘절정’ 등의 시어가 말해주듯 에로티즘을 통해 생명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 ‘내 몸엔 모서리가 없다’에서는 생명성을 모



색하는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초적인 생명성 탐

구와 더불어 위기에 처한 생명들의 안타까운 상황 제시,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이울러 시인의 생명성 탐구는 원초적 감각을 통해 생명성의 본질을 묘사하고, 생명의 아름다움과 환희, 그리고 생명의 상처와 강인함을 일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꿈나물’에서 ‘문뚝’, ‘발기’, ‘귀두’ 등 성애와 관련된 에로티즘적 상상력과 시 ‘발칙한 흥매화’에서 ‘자궁’, ‘홍조 뽕 불’, ‘열은 입술’, ‘불 지핀 가슴’에서 보듯



‘흥매화’가 꽃을 피우는 것을 “앞설 풀어 헤치는” 여성으로 의인화 함으로써 도발적인 연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외에 시인의 사랑시편은 격정적이지 않아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든다. 주로 자연이라는 상관물을 은유적, 상징적으로 내세워 시적완성도가 높고 설득력을 갖는다. 때로는 관념을 풀어쓰기도 하고, 때로는 시인의 일어나는 연민과 그리움의 사람의 감정들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번 시집은 ‘벚나무 모텔’을 비롯해 ‘흰 꽃이 필 때’, ‘내 몸엔 모서리가 없다’, ‘추억 부자’ 등 제4부로 구성됐으며, 일상 틈틈이 창작해온 시 77편이 실려 있다.

이승하 시인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은 “시인은 생활 주변의 화초와 나무를 보면서 생명체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한다. 대상이 생명체이든 사물이든 간에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경감있는 언어로 말을 건네는 시인의 작업은 이 세상이 비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며 “정치상황이나 경제상황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시편을 읽으면 독자는 많은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다양한 시각 ‘리듬 속 단맛’ 진도와 남미의 민속탐험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내일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

국립남도국악원 (원장 박정경)의 ‘2025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4월 무대가 16일 오후 7시 전남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에서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의 올해 신규 사업인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국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전남 진도군 소재 옥주골 창작소에서 총 8회 진행한다.

공연은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 형태로 선보인다.

16일 강의는 박명화 작가가 ‘리듬 속 단맛: 진도와 남미의 민속탐험, 진도와 남미의 민속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명화 작가는 중남미 스토리텔러이자, 경향신문사 출판사진국 기자 출신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사진작가다. 그는 지속적으로 중남미를 방문하며 현재의 문화와 이야기를 한국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박 작가는 남미의 사랑수수 재배와 독특한 민속문화를 한국의 엿거름 및 쌀로 단맛을 낸 엿과



박명화 작가

교차시켜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남미의 북놀이와 한국의 진도북놀이를 비교하며 두 지역의 전통 음악과 춤을 살펴보고, 남미와 진도의 노동요 이야기를 통해 각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박 작가의 풍부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강연은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과 함께 전남도무형유산 조도맞배노래 보유자 조오환이 ‘엇타령’을, 진도민속문화예술단 박소심·정기자가 진도 토속민요를 들려주고,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이수자이자 진도민속문화예술단 단원인 고미경이 ‘복춤’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30명까지 전화 접수를 받는다. 미취학 아동은 입장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061-540-4038.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21년 건강기능식품 안전 품질인증(신약)을 획득함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원 재료 유전자 변형 여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량(당분) 300mg 이하.

2021년 11월 18일 기준

제조일자: 2025.03.18

유통기한: 2026.03.18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